

단오절,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행사 인민광장서



새 중국 창건 75 주년을 경축하고 길림시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문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길림성문화관광청과 길림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과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주관,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조직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화민족 단결 한가족’ 계렬 행사 및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주제일 행사가 6월 10일 길림시 인민광장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매년 단오절에 즈음하여 개최되는 길림시 조선족 단오절 행사는 수십년 동안 이어져오며 길림시 조선족들의 년중 최대 명절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6월 10일 이른아침부터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 주행사장인 인민광장은 명절의 분위기로 흥성거렸다.



이번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행사는 조선족 무형문화재 특별공연, 길림시 조선족 어린이 작품 전시,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웃놀이 시합, 조선족 문화풍토 전시, 조선족 상품, 식품 전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길림시 조선족 전통식품 전

시 코너에서는 길림시 조선족 미식거리 대표간판으로 알려진 ‘시골집식당’이 현장 찰떡 치기, 김치 만들기, 천인비빔밥 만들기 등 인기를 모았다. 길림시조선족실협소학교 학생 작품 전시 코너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

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정민 관장은 이번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행사 무대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과 길림시 여러 조선족 협회와 단체들에서 준비해온 다채로운 종목들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료녕성 철령시문화관과 안도현문화관을 초청, 각기 무형문화재 탈춤과 무형문화재 학습을 길림시 대중들에게 선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 등장한 길림시 조선족들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웃놀이 시합에는 길림시 조선족 기관, 단체의 선수들로 무어진 32개 웃놀이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승부를 겨루었다.

오후 3시 반, 단오절 길림시조선족무형문화재행사는 모든 절차를 완만히 마무리하고 폐막을 선포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길림시국제룡주초청경기 송화강에서



6월 10일, ‘갑진룡등 성세중화(甲辰龙腾 盛世中华)’ 2024년 단오절 길림시국제룡주초청경기가 길림시 선영구 립강유원지 아래 송화강 수역에서 개최되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전고가 울리자 룡주들이 현을 떠난 화살처럼 출발점을 뛰쳐나가고 선수들은 노를 휘저으며 물살을 헤쳐나간다.

관객들은 룡주경기의 치열한 대결에 흥분을 금치 못했고 응원소리는 송화강 양안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 경기에 참가한 룡주팀은 로씨야에서 온 3개 국외팀, 천진 남개대학 룡주팀, 북경 TBT 룡주팀 및 동북전력대학 룡주팀, 길림시소방구조지대 룡주팀, 길림시공안국 룡주팀, 길림시등산운동협회 룡주팀, 길림시

분흥리봉팀 룡주팀 등 12개 팀이다. 300명의 룡주 선수들이 넓은 송화강에서 200미터와 500미터 스피드전 우승에 도전했다.

예선과 준결승전, 결승전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최종 길림시소방구조지대 룡주팀, 동북전력대학 룡주팀, 천진남개대학 룡주팀이 각기 200미터 스피드전 1, 2, 3위를 따내고 길림시소방구조지대 룡주팀, 동북전력대학 룡주팀, 로씨야 호랑이룡주팀이 각각 500미터 스피드전 1, 2, 3위를 따냈다.

두 종목의 경기 총 순위를 보면 길림시소방구조지대 룡주팀, 동북전력대학 룡주팀, 로씨야 호랑이룡주팀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 강성일보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웃놀이 1 등

일전, 길림성 백산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에서 길림시가 웃놀이 종목 경기 1등을 따냈다.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5명 선수가 길림시를 대표하여 웃놀이

종목 경기에 참가하였는데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현장 발휘로 적수들을 꺾고 최종 우승 시상대에 서게 되었다.

웃놀이는 조선족 전통 유취 종목으로 2021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길림성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한 종목으로 입선되었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웃놀이 무형문화재 전승보도단위로 다년간 조선족 웃놀이의 전승, 보급, 발전에 힘쓰고 있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조직하에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길림시 조선족 웃놀이 대잔치가 펼쳐지며 길림

시 조선족들의 최대 명절인 길림시조선족민속단오제 행사에도 웃놀이 시합을 설치하였다.

현재 웃놀이는 길림시 각 조선족학교와 조선족 민간단체 문화활동의 주요 종목의 하나로 되었다.

/ 차영국기자

‘운동회 신난다’,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체육절 개최



일전,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 ‘민족정을 전승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한 체육절 및 취미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운동회에서 각 학급 선수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하나같이 생기발랄한 모습과 단결호조의 정신을 과시했다.

비가 보슬보슬 내렸지만 운동회는 계속 진행되었다. 재판원들은 보슬비를 맞아가면서 운동회를 조직하였고 선수들도 보슬비를 무릅쓰고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저기서 무시로 터지는 환호소리, 웃음소리로 운동장은 즐거운 분위기로 차넘쳤다. 처음으로 비 속에서 진행된 뜻깊은 운동회였다.

운동회는 학생들의 경기 수준과 도덕기풍을 보여주고 개성과 풍채를 보여주었으며 단결친선을 보여주었다.

즐거운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짧은 법. 운동회는 전체 사생들의 못다한 아쉬움 속에서 원만하게 끝났다.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시켰고 또한 그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었다.

/ 김명자, 차영국기자

길림화학 북방회사 5 개 중점대상 조업 재개 추진



올 들어 길림화학(吉化) 북방회사는 5개 중점대상의 조업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개는 신설 대상이고 4개는 추가건설 대상이다.

3월달에 탄소8, 탄소9 종합리용 프로젝트와 운작(云雀) 아세틸렌 충전소 대상이 공사를 재개했다.

이 대상들은 생산에 들어간 후 길림화학 북방회사의 제품구조 최적화, 경제효의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길림석유화학회사와의 산업 부대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게 된다.

길림화학 북방회사는 공사 건설대상 업무 재개 방안을 연구 제정하여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의 사업 임무를 과학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대상 설계, 구매, 시공 세 단계를 통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공사 건설의 실시 진도가 총체적으로 통제되도록 확보하였다.

탄소8, 탄소9 종합리용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되어 토건 시공을 이미 끝냈으며 탄소8, 탄소9 중심 통제실은 중기 인계를 실현했다.

이 대상은 동계 휴식 기간을 리용해 상세한 설계, 물자 구매, 대상별 착공 수속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철골조 기둥 조립을 진행중으로 올해말 건설되어 중기 인계되고 2025년에 길림석유화학의 신설 전환 업그레이드 에틸렌 설비와 동시에 가동될 예정이다. 대상 가동후 길림석유화학 부제품 자원 리용률을 높이고 북방금강회사의 제품구조를

최적화하여 연간 판매수입이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틸렌 충전소 대상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설비 플랜트 본체, 설비 기초 등의 시공을 이미 끝냈으며 올해 6월에 중기 인계를 마칠 예정이다. 생산에 들어간 후 매년 20만 명의 용해 아세틸렌 증가로 연간 신규 판매수입이 460 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염화팔라듐과 고무보조제 두 대상은 작년말에 완공되어 시험생산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시운행할 예정이다. 대상이 가동된 후 길림석유화학 부제품에 보조제를 제공하여 북방회사의 경제효익을 증가시키게 된다.

길림석유화학이 새로 건설한 아스팔트 가스제조설비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공기분리설비 개조 대상은 이미 기초설계 회신, 장주기 설비 주문을 마쳤으며 상세한 설계 및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바 4월에 착공하여 10 월말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되어 생산에 착수한 후 아스팔트 가스제조설비용 산소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길림화학 북방공사는 상하 련동을 강화하고 대상건설관리부 주간 정기 업무회의제도를 가동하여 대상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 감독, 처리하도록 했으며 대상 품질에 대한 감독수단과 감독방식을 강화하여 여러 시공현장이 안전하고 문명하며 평온하게 통제되고 진도에 따라 추진되도록 확보했다.

/ 강성일보

길림조중, 축구특기생 모집



길림시조선족중학교는 ‘전국청소년교정축구특색학교’, ‘길림성축구전통학교’로서 우수한 교정축구인재와 지도원팀을 갖고 있다.

이 학교 축구팀은 체계적인 전문화 훈련 및 엄격한 일상 관리를 견지하여 다년간 국가, 성, 시에 대량의 덕재가 겸비된 우수한 축구운동인재를 수송해왔다.

본교 축구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본교는 전 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축구특기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생모집 계획
남자축구: 0명—4명

▲신청 준비
신청 시 수험생은 반드시 신분증 사본, 최근 면관 2인치 사진 2장(사진 뒤면 비고 성명, 신분증 번호), 3급 갑등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 의외상해보험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채용 방법
전공시험 성적이 합격되고 고중입학시험 성적이 중점중학교의 최저통제선의 60% 이상에 달하면 고중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입학시킨다.

▲시험 주의사항
신청 기간: 5월 27일 — 6월 21일(8:00—16:30)
신청 장소: 길림조중 학생처
수험표 취득 시간: 2024년 7월 1일
수험표 취득 장소: 길림조중 학생처
시험 날짜: 2024년 7월 2일
시험 장소: 길림조중 운동장
/ 차영국기자

▲학생모집 원칙
1.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한다.
2. 학생 자원 신청, 쌍방향 선택의 원칙을 견지한다.
3. 엄격한 표준을 견지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조건
1. 2024년 중학교 졸업생
2. 자원적으로 학교의 축구특기생에 응시하려면 학교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각급, 각 부류의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